

초대형 108염주 한국온다

한알 지름 40cm 총무게 5톤, 6월6일 관음사 봉안



염주알 한알의 지름이 40cm이다. 왼쪽이 108염주를 만든 임관지 거사. 오른쪽은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프리카산 부평가목으로 만들어졌다. 정오스님은 "나무뿌리 부분은 북한에 봉안하는 염주로, 기둥 부분은 남한에, 가지 부분은 일본에 봉안하는 염주로 만들어 서로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화 했다"면서 "이 염주들을 남한과 북한, 일본에 봉안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추진위를 구성 봉안불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작자 임관지 거사와 통국사 무애스님은 6월 6일 관음사 봉안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염주알 표면에는 분단에 대한 화해, 조국통일과 번영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 정오스님은 "2벌의 대형염주는 일단 치악산 관음사에 모셔져 기도에 들어가며 북한에 보내질 염주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육로를 통해 유서깊은 사찰 묘향산 보현사에 봉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음사 주지 정오스님은 66년 출가, 80년 일본에 가 대정대학 정토학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일본 기후현 청운사 주지로 취임하면서 한민족 불교도총연합회 부회장을 맡는 등 재일 조선불교도협회 총무부장 무애(일본 통국사 주지)스님 주 친분을 쌓아와 이번 대항염주 봉안 불사를 공동 추진하게 됐다. 이경숙 기자

"남북통일기원" 재일동포불자 제작

정부협의를 거쳐 북한에도 봉안 예정

한 재일교포 불자가 통일을 기원하며 만든 108 초대형염주가 남북한 사찰에 봉안될 전망이다. 태고종 원주 관음사 주지 정오스님에 의하면 재일교포 불자 임관지(한국명 임종오·46)씨가 만든 지름 각각 45cm 40cm 대형 108 염주 2벌이 8일 일본을 출발

해 20일 한국에 도착, 오는 6월 6일 오후 3시 치악산 관음사 법당에서 봉안식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화기산 통국사에 지난해 3월 봉안되었다. 임관지씨가 99년부터 1년여에 걸쳐 만든 3벌의 108염주는 단단한 나무로 알려진 수령 2천년의 아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물암산 관동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북한산 살리기' 자선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산 살리기 자선' 대안노선 수립위원회가 4월 23일 탑골공원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민간합동대책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북한산 금정산 살리기운동 확산

도로건설저지 자전거 행진·우회노선 축구집회

북한산과 금정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종교·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을 출발해 구파발까지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북한산 살리기' 자전거 행진대회를 연다. 광화문, 독립문, 불광동 구파발, 송추를 경유하는 이 행사 참가자들은 일반시민들에게 북한산 관동도로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

단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동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공동대표 일민)는 4월 23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정부의 개발중심 국토정책을 규탄하고 우회노선 검토와 민간합동 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도 4월 17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제 20차 회의를 갖고 심

울산남구 노인복지관 포병1사단 부대전학

울산남구노인복지관(관장 종선)은 18일 관내 노인 200여명을 초청, '포병 1사단 부대전학 및 경주 보문단지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울산남구노인복지관은 이날 행사에서 군부대 군악 의장대 시범 관람, 군부대 역사박물관 관람을 마친후 경주 보문단지로 이동, 레크레이션으로 흥



울산=천미희 기자

본존 봉안불사 기념식

총지중, 역삼동 총지사서

총지중은 새로운 본존불을 모시는 '본존 봉안불사 기념식'을 4월 23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서에서 봉행했다.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총지중 총지중은 법에서 "이번 불사는 본존을 모시는 불사에서 그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성념을 조복하고,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득히 담는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 59회 춘계 강공 일정은 4월 23일 원외회 및 재단이사회, 24일 개강불사, 중앙총회, 승단총회 등으로 진행됐다.

천미희·강유신 기자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박봉영 (취재1부 기자)

군불교진흥회의 한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본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인즉, 군불교진흥회 간부들 사칭한 사람이 군법당에 지원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모사철에 찾아와 보관물품을 인수해 갔는데, 확인 결과 물품을 인수해 간 사람은 군불교진흥회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어이없어 했다.

군불교진흥회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군법당에 위문품 보내기 운동'이 한창인 요즘, 이를 악용해 각 사찰에 다니며 '군법당 위문품'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불초행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은 빈번히 발생해 왔지만, 군포교를 사칭한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구용품 강매나 단순 금품 갈취 등 기존의 수법과는 달리 취약한 군포교 현실을 악용했다

군포교사청 금품 갈취

는 점에서 충격적일 수 있다. 군불교진흥회는 지난달 17일 최초 피해사제가 보고된 직후 불교계 각 종단과 사찰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고 있지만, 개별 사찰까지 공문을 발송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0여일 동안 밝혀진 사례는 3건.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군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포교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자비행과 함께 서로간의 믿음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보시를 하더라도 받는 이가 '진짜인지'까까 의아해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구용품 강매나 단순 금품 갈취 등 기존의 수법과는 달리 취약한 군포교 현실을 악용했다



함경북도 농장 400정보 비료 및 농자재

제이티에스·광소·부산항 중앙부두·일자 : 2002년 4월 23일

JTS는 4월 23일 부산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을 가졌다. 왼쪽에서 세번째 가정교회 지도부사법준스님.

3억 상당 물품 대북지원

한국 JTS, 생필품·비료 등 선적

(사)한국JTS(상임이사 유수 스님)는 23일 부산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을 갖고 3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송했다.

법륜스님과 JTS회원들이 참석한 선적식에서는 북한 라선시 탁아유치원, 라선시 함경북도 농장, 함경북도 고아원 등에 비누, 화우품, 영양제

등의 생활필수품과 분유 15톤, 설량 30톤, 옥수수쌀 17톤, 밀가루 100톤, 복합 요소비료 80톤, 비닐 24톤 등의 물품을 선적했다. 지원물품 인수 및 분배 과정 확인을 위해 미국 뉴욕 JTS 최경숙 이사, 박진아 이사가 라선시를 방문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7일 미얀마의 날 선포식

무료기술교육센터건립·근로자 지원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창립식과 '미얀마의 날' 선포식이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초대회장인 해은스님(해은정사 주지)과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박찬수(목아불교박물관장), 김홍국(이은하(불자)가수), 고우종(박종성(사암)씨 등 홍보명예대사와 한국 주미 미얀마 우 누랑체인 대사 등이 참석해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의 결성을 축하하고, 한-미얀마 친선교류 증진과 주한 미얀마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 등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미얀마 친선교류협회는 앞으로 미얀마 불교의 중흥인 바단타 소비타 담파 스님이 제공한 2500여명

의 부지에 무료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협회 산하에 직영여행사 등을 두고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해은스님은 "타이이 맑고 순수한 미얀마 스님과 불자들의 교류 증진과 주한 미얀마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본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02)338-2158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경진의 이 관상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스님들께서 육임을 하면 역술이 아닌 법력이 되고 맙니다. 육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간 ▶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좌정용과 휴대용'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천하오기나 천화오기나 가시 만년사람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육임은 년월일시를 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시 만년 그 날 그 시간 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간간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시 만년다러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또, 어디를 출타할때도 방문 앞에 오늘, 내일, 10일후, 한달후, 1년후 어느날 어느시간에 온 방문지든 아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써 놓고 외출할 수 있으며, 미리 써 놓은 그것들이 신통하게 맞으므로 내가 자리에 있을때나 외출 할때나 나의 법력과 도력이 크게 커져 되는 것입니다.
- 이틀터전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했는지
 - 어떤 특별한 속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겪게 될 것인지
 - 종교가 하는일이 어떤것인지 그 목적사가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판단할 때는 그 목적사가 어느일, 또는 어느 일에 가서 성사 될것인지
 - 본인이 저지는 일인지,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
 - 상대방의 친성이 선한지, 악한지
 - 상대가 이익을 줄 사업인지, 피해를 줄 사업인지, 손해라 할 사업인지, 무익한 사업인지
 -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종간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말을 배소 시킬 것인지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량이 풍한지, 길한지
- 이사를 어느 방위로 맞길만 해야만 개운이 될 것인지
- 부처, 국, 천도, 교사 등 수법을 행할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다면 언제 해야만 좋을 것인지
- 어느 방위에서 사는 남녀 누구가 붉은 목욕을 방해 하고 있는지
- 부부간 누가 필통을 하고 있는지, 한 남자에 두 여자 관계인지, 두 남자에 한 여자 관계인지, 남자가 적극적인지, 여자가 요리리 적극적인지
- 병(病)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앓았다면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인지
- 집(土地)이 팔릴지 안팔릴지, 팔린다면 언제 팔리게 될지
- 임신한 아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시 만나자 마자 즉시 알려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분이 제법당당해 지기가 앞서서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제,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솔,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시험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 어떤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환인전문 천역지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02-993-8680 부산지사: 051-851-2349
본 사: 02-996-3335 당일배달: 정현철

입금규칙: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경란 도서출판 북문
책 값: 좌정용 1,300,000원 휴대용 1,500,000원 증보판 350,000원
매월별 12권 분권(부록, 비디오 포함) 각종 카드도 정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 육임 강의의 안내 : 지병에 계시기나 참석시간에 예매가 있는 분들에게는 비디오 수업을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강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3일내 도착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사주명리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의 판단능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을 아는다는 데도, 지리를 아는다는 기문, 인사를 아는다는 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시주나 일변명리는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없는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육임은 많은 것을 시간정보로 딱딱 무뎌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 들은 만능보다 당정의 문제를 물어 옵니다. 여기에 육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강으로 풀밭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공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목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펼친 상태(풀조 및 인쇄집지 합지 방식)
-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풀조 TV 제작 —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풀조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 연등완성품

◆ 연등을 붙인 상태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H:(016)552-9360